

## HUFS TODAY

### 제목 : 한국외국어대학교, KAFSA 회장교로 'NAFSA 2025' 한국대학 공동부스 성공적 운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교류처(국제교류처장 양재완)는 지난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2025 NAFSA Annual Conference & Expo에서 한국대학 공동부스(Study in Korea)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NAFSA(북미국제교육자협회) 연례 컨퍼런스 및 박람회는 매년 100여 개국에서 1만 명 이상의 고등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교육 행사다. 이번 공동부스는 한국대학국제교류협의회(KAFSA) 주관으로 운영되었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는 KAFSA 회장교로서 부스의 기획과 운영을 총괄했다.

KAFSA는 110개 국내 대학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국제교류 협의체로, 한국외대는 2025년 회장교로 활동 중이다. 특히 이번 'Study in Korea' 공동부스는 한국적 감각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부스의 가시성을 높여 현장 참가자들과 방문객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높은 호응을 얻었다.

공동부스에는 한국외대를 비롯한 경북대, 경성대, 국립목포대, 국민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아주대, 울산대, 전남대, 제주대, 충북대, 한양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총 14개 기관이 참가했다. 각 기관은 북미, 유럽, 아시아 지역 대학 및 교육기관과 적극적인 네트워킹과 상담을 진행했으며, 교환학생 파견 확대와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대학은 신규 교류 협정 체결에도 합의했다.

한편, 행사 중인 5월 29일, KAFSA는 한국 대학 참가자와 LA한국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관계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참가 대학 관계자 격려와 함께 미국 학생의 한국 유학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LA한국교육원은 유학생 유치를 위한 계획을 소개하고, 미국 현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한국 유학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 공간 마련과 국내 대학의 유학 홍보 지원을 강조했다. 또한 대학별 학사정보와 장학금 안내 등 유학 정보 통합 제공, 유학 수요 발굴, 상담 지원 및 유학박람회 개최 등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 방침도 밝혔다.

이번 공동부스 운영으로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국외 우수 대학들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대학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반 공고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 NAFSA 공동부스 사진

